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3. 21. (금)

백원국 2차관, “‘26년 3월 서해선 단절구간 우선 개통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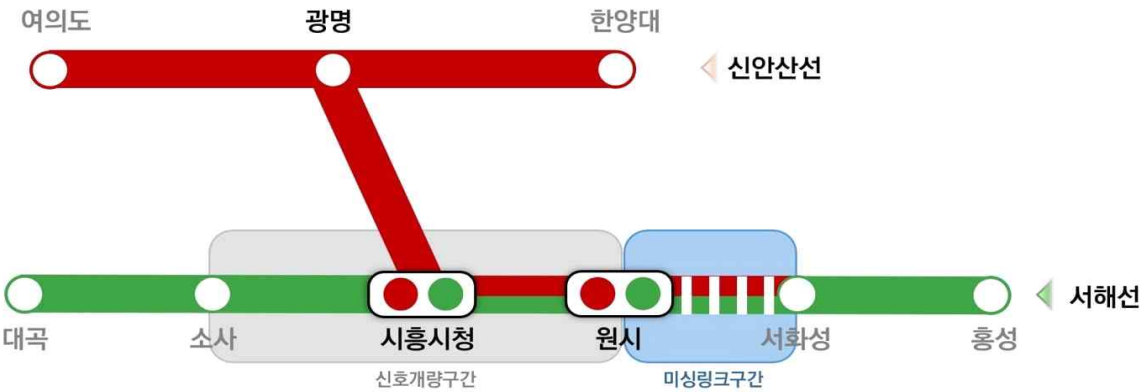
- 21일 신안산선·철도지하화 우선추진사업지 공정관리·신속 사업 추진 강조

□ **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**은 3월 21일 오전 **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** 현장을 점검하였다. 특히, 이번 점검에서는 신안산선 사업자가 건설 중인 서해선과 대곡~소사~원시선을 연결하는 **단절구간**(서화성~원시)을 찾아 **신속한 공사 추진**을 지시하였다.

○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·화성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**44.9km 구간**에 **19개 정거장**을 신설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. ’20년 4월 착공하였으며, **’26년 12월 개통**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.

○ 신안산선 사업자가 공사 중인 **서해선 단절구간**(서화성~원시)은 **’26년 3월 우선 개통**하여, 단절되어 있는 서해선과 대곡~소사~원시 노선을 연결할 계획이다.

< 신안산선 및 서해선 노선도 >



* 미싱링크 구간(missing link) : 철도노선 중 단절된 구간

□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공사 현황을 점검하면서, “신안산선은 지난해 8월 **공사기간**이 **한 차례 연장**(’25.4월→’26.12월 개통)된 만큼, 개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지연이 없도록 **공정관리**에 **최선**을 다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이날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**소사~원시선**의 **신호개량 공사**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. 현재 소사~원시선은 연계 노선과 달리 **외산(外産) 신호**를 사용하고, 신호용량* 상 **시간당 9.25회**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어 서해선·신안산선 운행을 위해 신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.

* 신호용량(Signal Capacity) : 철도 시스템 상 일정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열차 운행횟수

○ 백 차관은 "소사~원시선의 신호가 개량되면 **시간당 14회**의 열차가 다닐 수 있어 **서해선 준고속열차**와 **전동차**, **신안산선** 등 **계획된 모든 열차**의 운행이 **가능**하므로 수도권 서남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"이라면서,

○ "연계 노선과 같이 국산(國産)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**신호 불일치로 인한 오류**나 **수동 조작 필요성**도 줄어 **열차 이용**도 **더욱 안전**해지므로 **신호개량 공사**가 **적기 추진**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"고 말했다.

○ 또한 "**신속한 공사만큼 중요한 것**이 **사고예방**"이라고 강조하면서, "공사 과정에서 **화재·추락사고**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각별히 주의**할 것"을 당부하였다.

□ 아울러 **백 차관**은 지난 2월 **철도지하화통합개발 우선추진사업 대상지**로 선정된 **안산선 초지역~중앙역 구간 현장**도 점검하였다. 현재 안산선 교량 하부에 조성되어 **안산시 도심을 단절 중인 녹지지역 현황**을 **점검**하고, **초지역부터 중앙역(연장 약 5.1km) 구간**에 대한 **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추진계획**을 보고받았다.

○ 백 차관은 "**안산시 도심을 단절**하고 있던 **국유지와 시유지를 통합 개발**함으로써 **철도지하화 사업의 모범사례**가 될 것으로 기대"한다면서, "**기존 도심 공간에 큰 혁신**을 가져올 수 있도록 **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**하겠다"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 김현진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 조범현 (044-201-4093)
		담당자	주무관 오수정 (044-201-3980)
	철도국 철도지하화통합개발추진단	책임자	단 장 유삼술 (044-201-3398)
		담당자	서기관 박선동 (044-201-4391)
		담당자	사무관 유찬호 (044-201-439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